

축산 방역의식 '실종'

지난달 22일 충남 홍성에 위치한 A 사료업체의 하치장. 오후 6시경 흰색 승용차가 소독장치를 거치지 않은 채 무사통과하고 있다. 충남 당진의 또 다른 양돈장에서도 이 곳을 오가는 차량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출입하고 있다. 농장 입구에 설치된 차단방역기는 무용지물로 전락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축산업계의 방역의식이 위험수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06년 11월, 3년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재발했고 브루셀라, 양돈소모성질병 등 각종 악성 전염병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방역이 필수적인 일부 농장과 사료업체 하치장 등에서 제대로 된 차단방역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양돈업계의 한 관계자는 "겨울에는 소독장치를 가동할 경우 얼수도 있고 기계 자체가 고장나 가동을 하지 않는 농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2002년 구제역 발생 이후 매년 농림부가 특별방역기간(3월~5월)을 설정해 대대적인 홍보와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축산업계의 방역에 대한 인식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HACCP 인증 사료공장은 출입자에 대한 철저한 기록을 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소독만 할뿐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향후 질병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시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공장 하치장 등을 출입하는 차량의 경우 여러 농장을 오가는 만큼 질병 전파의 주범이 될 수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축산업계 관계자들은 HPAI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이 높은

시기인 만큼 축산 관련 업계와 농장들이 철저히 차단방역 및 소독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장과 사료공장일지라도 연계방역이 안될 경우 그동안의 수고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만큼 인근 농장들과의 연계방역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 교수의 조사결과 발판소독조 사용 농장의 평균폐사율은 13%인 반면 그외 농장은 19%인 것으로 나타났고 울인/울아웃을 시행하는 농장의 폐사율도 13.8%로 그렇지 않은 농장(23.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곡물수입 공동구매 추진

앞으로 곡물 수입량의 절반 가량이 사료협회를 통한 공동구매형태로 수입될 전망이다. 한국사료협회(회장 김정호)가 지난달 27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은 옥수수 등 곡물 수입시 약 절반 정도의 물량을 사료협회를 통해 공동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초 약 130달러대였던 옥수수 가격이 239달러(2월 29일 기준)까지 치솟는 등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사료원료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 차원에서 협회 회원사들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 일본의 경우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해도 가격안정제도 등을 통해 원가상승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국제곡물가와 수급 변동에 따른 영향이 커 이를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구매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향후 이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위험부담으로 꺼려했던 장기계약도 성사시킬 수 있어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료값 인상 불가피하다더니...

배합사료가격은 인상됐지만 농장 할인(DC)은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가격인상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료업체들은 국제곡물가격인상 등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 2~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약 10~12%의 사료가격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료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사료가격 DC가 점점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A지역의 경우 B사료업체는 2년전까지 양돈 사료가격의 할인폭을 약 16~20% 정도로 적용해 농가에 공급했다. 하지만 업체간 경쟁이 점점 사료품질보다는 가격으로 기울어지면서 최근 할인폭이 18~26%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지역의 할인폭은 더욱 가중됐다. C업체의 경우 2003년 양돈사료의 가격할인폭이 최대 24%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40%선까지 육박한 것. D사료업체의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료업체들이 양계사료의 경우 마진보다는 공장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생산·판매하고 있다”면서 “최근 양돈사료도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그런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곡물가격인상 등으로 사료업체들이 가격인상을 단행했지만 현장에서는 사료가격 DC가 점점 심화되면서 가격인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지적이다. 경북 청도의 한우농가는 “업체들은 곡물가격인상과 환율, 기름값 등등 여러 이유로 사료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오는 5~6월경 추가 인상을 할 것이라는 소문도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과당 경쟁에 따른 막대한 할인이 이뤄지고 있으니 가격인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친환경 축산용지로 활용을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의 윤곽이 드러나자 축산업계는 새만금 간척지에도 친환경축산단지를 조성, 새로운 축산의 메카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간척지 면적의 71.6%에 해당하는 땅(6천1백25만평)에 논과 원예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농경지(1백83억6천만평) 가운데 12억8천8백만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새만금 농지는 줄어드는 농지의 절반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만큼 우량농지가 확보 된다는 점에서 새만금 농지에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 95만ha의 논에서 4백70만톤의 쌀을 생산, 수요량 4백20만톤을 제외하면 50만톤의 쌀이 남게 되는 상황이다. 이는 10만ha의 논이 남아도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에서는 이같이 남아도는 농지를 친환경축산용지로 활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동시에 원만한 쌀 수급도 이뤄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축산업계는 농업진흥지역안에서도 축산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된 만큼 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고품질의 축산물 공급으로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특히 새만금 간척지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려면 엄격한 기준을 정해 이 기준에 부합하는 축산인들만이 축산을 하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일부에서 우려하는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韓·中 FTA 포괄적으로 추진농업분야 민감성은 충분히 반영해야”

농림부와 외교통상부는 지난 3월 22~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 1차 회의에서 “모든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FTA를 선호하며 다만 농업분야의 민감성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농림부 등에 따르면 우리 측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등 어느 한 분야도 빠지지 않는 FTA를 선호하지만 농산물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중국 측은 자동차, 철강, 화학, 기계, 화장품 등 민감산업에 대한 FTA 영향 연구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민감산업을 극복하기 위해 양국 업계 간 대화채널 구축을 희망했다.

공동연구는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에서 양국 통상장관이 회담에서 합의해 시작됐다. 이번 1차 회의에 우리 측은 김한수 수석대표(외교통상부)와 관련부처 및 산업계, 학계 인사를 포함한 20여명 규모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중국 측은 위젠화 상무부 국제경무관계사장(우리의 국장에 해당)을 수석대표로 50여명의 대표단이 참가했다.

조사료용 비닐 ‘부가세 환급’ 추진

농림부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조사료생산용 비닐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방안에 따르면 올해는 총체보리 재배면적을 1만5천ha로 확대하고, 초지 등을 포함한 조사료 재배면적을 15만3천ha를 조성하는 등의 휴경지, 간척지 등을 이용한 집단화된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있다.

또 조사료 생산지와 소비지간 장거리 운송비 지원을 통해 지역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토록 하는 한편 축산농가 등 조사료 이용주체를 대상으로 조사료 생산·이용교육을 실시하고 총체보리 수요촉진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의 효율적 운영 및 수입추천 대행기관별 배정기준의 합리적 운영, 그리고 수입조사료 관리실태 정기점검 등 사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할인점 우유 끼워팔지 말라” 낙농단체 요구

낙농관련 단체들이 대형 할인점들을 상대로 ‘우유 끼워팔기’ 없애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형 할인점에서는 1ℓ 짜리 우유를 1500~1700원에 사면 200ml짜리 우유 2개를 테이프를 감아 덩으로 주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우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유가공협회, 낙농육우협회 등은 최근 총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조만간 농림부와 협의를 통해 대형 할인점 최고경영자(CEO)와 소비자단체장, 낙농관련단체장 연석회의를 추진키로 했다. 낙농진흥회 조재준 홍보팀장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대형 할인점의 ‘우유 끼워팔기’가 우유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흐리고 출혈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농축산소식

유가공업계에 따르면 현재 흰 우유 물량의 5~10%가량이 끼워팔기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우유 소비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는 거의 없고, 소비자들에게 '우유=싼 제품'이란 그릇된 이미지만 심어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다른 물건은 대부분 특별판매 기간 중 덤이나 끼워팔기가 가능하지만 우유는 연중 내내 끼워팔기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유회사들이 서로 출혈경쟁을 자제하면 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우유업계 관계자는 "대형 할인점의 유제품 매장은 소비자들이 반드시 한번씩 들르는 곳인 데다 동네 슈퍼마켓 등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어 대형 할인점에서 퇴출될 경우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2005년에 대형 할인점을 상대로 업체들이 쌀을 대폭 할인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끼워 팔기나 할인판매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우유 끼워팔기'는 2004년 우유 소비자가격이 20% 가까이 인상되면서 소비가 급감하자 일부 우유 회사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시작, 대부분 업체들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끼워팔기를 없애면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어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낙농진흥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얼마만큼 강도높은 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이나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는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유 끼워팔기"를 없애는 것은 상품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어 불공정 거래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유가공업체 전체가 유통업체에 대해 '끼워팔기'를 계속

하면 우유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한다면 담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낙농체험 인증목장 부족 ... 희망 목장 신청접수

낙농진흥회는 낙농체험여행의 인기가 매우 높은 데에 비해 인증목장 수가 적어 소비자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며 인증목장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실제 2004년 1개 목장에서 시작된 낙농체험은 지난해 6개 목장 1만5000명으로 확대됐다.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춘계낙농체험 가운데 서울출발 프로그램의 경우 이미 지난해 11월 마감에 끝나 대기자 숫자만 1000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낙농진흥회 홍보팀 관계자는 "과거 3년의 경험에서 낙농체험이 낙농산업과 우유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수단임에 확신을 가진다"며 "소비자들이 돈을 내면서 까지 목장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 체험목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낙농체험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여건이 되는 목장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진흥회는 규격화된 신청자격은 없으나 소비자에게 깨끗한 목장에서 건강한 우유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지닌 목장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4월 중 서면심사, 목장주 면담, 현장실사 등을 거쳐 선정될 인증목장은 낙농진흥회에서 낙농체험에 필요한 시설, 프로그램 교육, 해외 연수 등을 지원받게 된다. 2007년 현재 낙농체험 인증목장은 수도권 3곳, 중부권 2곳, 영남권 1곳이다. ☎

〈자료발췌 : 한국농어민신문, 농수축산신문, 축산신문〉